



◀땀을 손에 쥐고있는 황금빛의 가루다(gauda)소상(신상)이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는 '왓 프라케오(에메랄드 사원)'. ▶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신심을 가진 불교국가로 전체 6천만 국민의 95% 이상이 불자다. 인천공항에서 방콕까지 3669km, 5시간 30분정도 걸리는 제법 먼 거리지만 금요일 하루정도만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직장인들도 주말을 이용해 성지순례를 하고 월요일에는 정상 출근을 할 수 있다. 신도회나 불교단체도 연수를 겸한 성지순례를 한다면 좋을 듯 싶다. 특히 왕궁권이 비교적 산 11월은 떠나기에 더욱 안성맞춤이다. 3박5일의 순례 일정을 짜서 하의 실을 꼼꼼히 점검해 본다.

▶첫째날(목요일) 저녁 8시 비행기를 타자 현지시각 새벽 1시30분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다. 방콕 돈무앙 공항에 도착. 코골이에 밀려드는 후덜덜한 공



킷 티뿌도 파타야 왕립 불교대학원장

### 스님은 최고의 존경대상 절은 모든국민 생활공간

태국인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 그 자체이다. 초등학교는 모두 절안에 있으며 남자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동안(최소 3일~3개월) 승려로 생활해야 한다. 태국에는 전국에 약 32,000여개의 불교사원이 있다. 이곳은 승려들의 수도원이며 주민들이 불공을 드리러 오는 법당 역할을

한다. 또 국회의원 선거때에는 투표소가 되기도 하며 마을 주민이 죽었을 때에는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젊은 남녀 노소 모두에게 학교이면서 정보 교환의 장소이며 병원이고 놀이터이다. 태국에도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모든 종교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불교다. 국왕이 정치, 경제, 역사에 관한 것을 13명의 왕사 스님들에게 의논한다. 또 승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다. 어느 공공장소에서나 앉자리 좋은 자리는 승려들의 좌석으로 지정돼 있다.

## 목요일 떠나 **태국성지순례** 일요일 출근

### 항공료 싼 11월 적기...3박5일 일정 점검

기가 미국땅에 왔음을 실감케 한다.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둘째날(금요일) 방콕에서 북쪽으로 80km(버스로 약 1시간 30분 소요, 사방이 차오 프라야강과 그 지류에 둘러싸인 곳에 1350년부터 1767년까지 다섯 왕조와 35명의 왕에 걸쳐 417년 동안이나 이어진 아유타야 왕국의 도읍 아유타야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의 경주와 흡사한 도시인 아유타야는 한때 번성하던 무역

항이었으나 1767년 미얀마에 함락돼 불교유적이 많이 부서졌다. 하지만 왕궁의 부속사원이며 세 왕의 유골이 보관된 3기의 체다(종모양)의 불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왓 프라시 산켓 사원'과 태국 최대의 불상이 봉안된 비한 프라 몽론보피 사원, 각각각색의 불상이 가득 모셔진 '왓 아이차이몽론 사원' 등을 참배하면 아유타야의 화려한 영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부처가 유유히 누워있는 '왓 로카야 수타 사원'을 참배하고 2시

간 거리의 파타야로 이동. ▶셋째날(토요일) 동해안에 있는 파타야는 북서풍이란 뜻의 세계적인 휴양도시. 왕사를 비롯해 수많은 엘리트 승려를 배출하고 등신불까지 모셔져 있는 '왓청름 사원', 나라에 재앙이 일



◀일출과 낙조가 장관인 '새벽사원'



### 태국 파타야 스님들의 탁발

#### 병자·노약자 빼곤 모두 참석 탁발공양 후 행복·건강 축원

삼톤(輸택시인 '족족이'가 이따금 거리를 스치는 새벽 5시30분 태국 동해안의 휴양지 파타야 사원 곳곳에서는 주홍색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사원 입구에서 탁발 공양의식을 봉행한다. 이어 6시부터는 중앙 시장을 비롯해 거리 곳곳에서 탁발이 펼쳐진다. 왕실 사원중의 하나로 '왓청름' 사원 스님들의 탁발 대열은 5~6명씩 5개조로 나뉘어 사원 근처의 3~4블록을 맡아 한바퀴 도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탁발은 병자와 노약자를 제외하고 주지 스님에서부터 동자승까지 거의 전원 참여한다. 인도년에 정성껏 장만한 밥과 음식이 담긴 그릇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은 채 단정히 두 손은 모은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가 탁발 행렬을 미리 기다리고 있다. 양말은 풀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의 스님들에게 어깨에 맨 절구모양의 발우에 금방 지어 김이 모락모락나는 따뜻한 찹쌀밥을 3~4주걱 퍼담아 준다. 탁발공양이 끝나 무릎을 꿇고 앉자 스님들

은 '왓타로 담마와 단티, 아유야노 속항 발-랑(행복과 건강이) 각 가정마다 증진되길 바랍니다'라며 축원해 준다. 탁발행렬이 이번에는 부지런한 상인들이 하나 둘 가게문을 열기 시작하는 상가골목에 접어들자 남녀 상인 3~4명이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를 스님들에게 건넨다. 겹눈질해 살짝 내용물을 살펴보니 요거트, 오렌지 주스, 빵이다. 1시간 30분동안 탁발행렬을 쫓아다녀보니 음식이외에 돈을 시주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탁발행렬에서 만난 추키아트 푸린과55세는 '아내가 내 밥은 차려주지 않아도 아침마다 스님들의 밥은 꼬박꼬박 챙긴다'며 '바람 때에는 과일이나 음료수, 빵, 돈 등을 시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침 7시부터 탁발한 음식으로 아침 공양을 마친 스님들은 오전 8시부터 명상 수행을 한다. 오전 11시 30분 점심공양을 끝으로 오후 불식(不食)이 엄격히 이어진다.



◀파타야 중앙시장에서 탁발하고 있는 스님들.

### 태국불교예절... 알고가자

▶사원(佛堂)은 지역(地域) 예절 더운 나라라고 해서 반바지 차림이나 소매없는 티셔츠를 입고 사원에 가서는 안된다. 또 끈없는 슬리퍼(샌들류)도 곤란하다. 일부 허용되는 사람도 있지만 참배객으로서 올바른 예의는 아니다. 특히 방콕의 에메랄드 사원과 같은 왕실사원에서는 입구에서 관공경찰이 참배객들의 복장을 일일이 체크한다. 만일 현지 사정이 어두워 반바지 차림으로 사원을 방문했다면 안내소에서 5천원 정도에 긴바

지를 빌릴 수 있다. 양호한 복장으로 사원을 통과했다면 주의할 점이 하나더 있다. 태국의 사원은 대웅전 입구 앞 바닥에 깔려 있는 대리석 부분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우리나라 사찰처럼 문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신발을 벗으니 주의하자. ▶입양(入養)은 법 태국불자들은 합장 인사를 할때 양손을 코 윗부분까지 올린다. 또 새벽녘 스님들에게 탁발 공양을 할때는 공양물을 눈썹 위까지 올린다.

# 착한 종이

이 종이에서 그들은 파란 바다 위 하얀 범선을 봅니다. 곳곳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봅니다. 앞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는 착한 종이-보워터하라가 만들고 싶은 좋은 종이입니다. 좋은 종이는 종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고 기쁨을 담고 생활을 바꿉니다.

보워터漢拿製紙株式會社 BOWATER-HALLA PAPER CO., LTD.

●본사: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554-1 TEL:(061)460-6114 ●서울시무수: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1 휴무빌딩 TEL:(02)567-1576